
전통주를 활용한 지역발전사례연구: 충남 서천군의 한산소곡주를 중심으로¹⁾

I. 서론	000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000
1. 지역자원과 지역발전	000
2. 전통주에 관한 논의	000
III.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소곡주	000
1. 한산소곡주 개요	000
2. 한산면의 발전특징	000
3. 청년공동체와의 융합	000
4. 소결	000
IV. 결론	000
V. 참고문헌	000

1) 도전.작은연구를 통해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도없이 접하고 단순히 마시기만 했던 '술'을 연구의 주제로 삼아 이것저것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부족한 연구자임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론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지역발전은 모든 지역이 당면한 과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학문적·실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장소성 만들기, 지역공동체주도발전전략 등은 각각의 방법론이 강조하는 측면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지역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노력들이 관찰된다(변필성, 2006). 함평군의 나비축제, 순창군의 장류산업, 보령시의 화장품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local development)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박인권, 2012). 유하나(2018)는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지역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여 지역이 보유한 역사·향토자원·문화자산 등 지역자원을 지역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인권(2012)은 지역자산과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념형(ideal type)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복리를 목표로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와 기업가정신의 증진이라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는 지역발전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복리(sustainable well-being)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의 편익을 누려야 하며,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assets)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가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지역내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들이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지역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학실, 2014; 유하나, 2018; 이병민, 2016). 지역자산은 자연적 자산(자연자원, 자연환경 등), 건조환경자산(건물, 산업·교육·기반시설) 등 물리적 형태를 지닌 유형자산과 문화관광자산(지역축제, 지역역사), 지역이미지(정체성) 등 보이지 않지만 지역에 존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모두 해당된다.

지역이미지, 문화관광자산, 지역상품 등 유·무형의 지역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주(민속주와 지역특산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전통주는 대부분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제조방법, 역사와 문화 등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갖는다. 더욱이 전통주산업은 농·식품, 설비·제조, 외식 및 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남동현 외, 2016; 김종화, 2022). 또한 전통주산업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다. 예컨대, 2022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출고량과 출고금액에서 지방(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이 각각 83.5%, 8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주’와 ‘지역’이 상호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어, 지역특산품이라는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인터넷 판매를 통한 ‘지역’이 가지는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는 제조장 인근 원료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바 상품에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역산업이다. 지역산업은 ‘지

2) 박인권(2012)은 이를 Sustainable well-being, Assets, Governance, and Entrepreneurship의 앞글자를 따서 SAGE 지역발전이라 명명하였다.

역의 특성있는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성', '지역성', '전통성', '산업 생태계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된다(김현호 외, 2019: 13). 전통주산업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지역산업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 지역산업의 특징

특징	내용
부가가치 창출성	- 지역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성	- 자원, 기술, 경영 등의 공간적 연고성
전통성	- 상당한 정도 지역에 존재해왔던 시간적 배태성
산업 생태계성	- 지역내 다수의 동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존재

자료: 김현호 외(2019: 15)

본 연구는 지역자원으로써 전통주가 가지는 여러 장점들에 주목하여, '전통주'를 매개체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전통주'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진 사례를 검토하여, 전통주가 지역자산으로 발굴되고 지역발전에 활용되는 방법을 추적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핵심행위자는 누구였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민속주 '한산소곡주'의 충남 서천군이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로 널리 알려진 충남 서천군은 서천군 한산면에 양조장이 밀집해 조성되어있다. 이곳은 한산소곡주를 바탕으로 지역자체가 관광자원화 되어 2015년부터는 한산소곡주 축제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자원과 지역발전

자원(resources)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인류의 사회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원천”, 좁은 의미로는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장주연 외, 2015: 227 재인용). 이에 따르면 지역자원을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사회를 유지·번영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자원에는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이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자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인적자원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향토자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생활이 반영된 전통문화유산이나 지역고유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장주연 외, 2015).

1980년대 이후 지역발전에 관한 논의들은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이경진, 2011), 지역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자원 활용과 이를 활용하여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지역자원기반산업, 향토 자원 상품화, RURITAGE,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 및 방법론이 제시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접근을 취한다(변필성, 2006; 이경진, 2011; 이병민, 2016). 이 접근들을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이라고 부른다면 지역발전전략의 두 패러다임인 ‘외생적 지역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 중 내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역 내에 지역발전의 추진주체와 동인이 존재하고 발전의 성과도 지역으로 귀속되는 지역발전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식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지역에 맞는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내용이 된다(변필성, 2006: 7). 일찍이 Freidemann & Douglass(1978)는 1시간 이내 이동거리인 지역에 인구 5만 ~ 15만명이 거주하며 주민의 직접참여와 협동적 활동을 통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자족성(self-sufficiency)과 자립성(self-reliance)을 가진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기반한 농·도시구(agropolitan districts) 개발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지역 내부의 동기와 주체성, 자발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내생적 지역발전의 원형(prototype)을 잘 나타낸다(변필성, 2006: 8).

최근 학술적·정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도시재생 개념도 큰 틀에서 보면 내생적 지역발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 도시재생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과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낡고 오래된 장소의 활용가능성을 살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도시와의 새로운 관계망을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병민, 2016). 도시재생은 도시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3)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재생과 내생적 지역발전 두 개념은 상이할 수 있다. 김혜민(2011)은 많은 도시재생 사업 및 정책들이 도시 내부의 발전 동력을 찾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며, 도시 고유의 자산과 가치창조를 통해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도모하고, 도시구성원을 위한 사업과 주민참여에 근거한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정한 공간에 내재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공간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두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도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재창조하고, 이러한 성과를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바 내생적 지역발전의 강조점과 궤를 같이한다. 2000년대 이후 논의되는 도시재생(rehabilitation)의 개념은 이를 잘 보여준다(이병민, 2016).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민참여형태의 민·관 공동참여로 상정하며, 공간적 측면에서는 소외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정체성·역사·문화·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며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필성(2006)은 보령시의 머드화장품 사례를 분석하여 보령시가 지역발전에 향토자원을 어떻게 상품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보령시가 지역 내 소재한 자연물질을 지자체가 기획하여 상품화(화장품)시키고 나아가 축제 및 체험관광의 소재까지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간 향토자원이 지역의 특산물, 관광명소, 지역축제 등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시켜 지역자원을 창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령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인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도적 역량은 ① 참여주체의 다양성과 참여방식, ②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③ 지역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④ 지역주체들의 리더십, ⑤ 각종 규범·협약·법령으로 구성되며, 보령시가 제도적 역량을 잘 활용하여 머드화장품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경진(2011)은 순창군의 장류산업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자원에 기반한 산업이 산업집적지를 형성한 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순창군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순창군의 장류산업이 형성되는 과정과 장류산업이 순창군에 정착하여 발전되는 과정의 긴 시간을 추적하여 기술한다. 순창군의 특산품이었던 순창고추장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되고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 중반부터 지역 특산물 개발 정책과 88고속도로의 개통, 식품가공기준 완화 등으로 전통형 장류제조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장류산업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5년에는 순창 전통 고추장보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순창군에서도 전통 고추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 규칙을 제정하여 지원을 하였다. 특히 1993년부터 1997년에 시행된 순창장류산업 단지화 정책에 따라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었고, 이 곳이 장류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보령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순창군이 지역적인 지역밀착형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적절한 군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병민(2016)은 무형의 자원인 문화자산이 도시재생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문화자산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자산이 역사와 스토리텔링, 가치로서의 이미지 등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장소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지역생태계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시재생·지역발전의 도구로써 우수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서울시 광진구의 <서울동화축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 축제가 가진 하드웨어·콘텐츠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요소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활용을 분석하였다. <서울동화축제>는 문화적 가치의 창조와 순환, 지역정체성의 확인과 발전이 문화자산을 토대로 도시재생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동화축제>는 산학관연 관계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 커뮤니티 지속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개발추진동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이진경 외(2022)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의 '인쇄골목투어'라는 프로그램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되

어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창작인쇄 활성화 프로젝트 메이커 충무로에서 진행하는 인쇄골목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지역주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화자산이 도시재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인쇄골목투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외부 소비자(관광객)와 커뮤니케이션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쇄골목투어’라는 지역사회 콘텐츠가 인구의 유입과 문화활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상호 협의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만능의(one size fits all) 이론적 틀 대신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구성원의 양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지역자원의 전통성뿐만 아니라 외부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② 지역자원을 주민과 외부 소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고, ③ 공간의 정비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④ 지역자원이 가지는 옛것과 새 것의 콘텐츠를 조화롭게 융합해야함을 제안하였다.

〈표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도시재생)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분석대상	지역자원	주요 내용
변필성(2006)	보령시	머드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시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역자원을 창출 - 지역발전과정에서 보령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조함 - 제도적 역량은 ① 참여주체의 다양성과 참여방식, ②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③ 지역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④ 지역주체들의 리더십, ⑤ 각종 규범·협약·법령으로 구성
이경진(2011)	순창군	장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긴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추적함 -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던 순창군의 특산물 순창고 추장이 1980년~1990년대 순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교통망 개선,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역산업이 형성됨 - 지역에 축적되고 착근된 지식에 외부 지식이 유입되어 새로운 지식 네트워크가 생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산업이 성장하였음 - 지역자원에 기반한 산업집적지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인 산업이었기 때문 - 순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설계 및 적용과 장류산업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
이병민(2016)	서울시 광진구	서울동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부의 경쟁력으로서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강조 - 문화자산이 가질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 다양한 콘텐츠웨어 등을 분석 - 문화자산의 특징이 물리적 자산, 인문적 자산, 프로그램과 결합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순환구조를 조성 - 〈서울동화축제〉는 산학관연 관계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 커뮤니티 지속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개발추진동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진단함
이진경 외(2022)	서울시 중구	인쇄골목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골목이라는 소규모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지역의 문화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인쇄골목투어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쇄골목투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이 지역자산화되고 지역주민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함 - 인쇄골목투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외부 소비자(관광객)와 커뮤니케이션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 -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외부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② 지역자원을 주민과 외부 소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③ 공간의 정비를 통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보, ④ 지역자원이 가지는 옛것과 새 것의 콘텐츠를 조화롭게 융합해야함을 제언

선행연구들은 유·무형의 지역자원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도시재생)에서 어떠한 요소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지역의 유형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한 사례들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변필성(2006)은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례를 통해 보령시가 주도적으로 기존 자연자원인 머드를 화장품으로 상품화시켜 새로운 지역자원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화장품의 상품화과정에서 보령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장품의 원료인 머드파우더를 직접 생산하여 OEM업체에 공급하며, 민간기업(☞태평양)과 기술협력관계를 맺고, 대학 연구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외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바탕을 둔, 지역이 처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지역의 자원이 갖는 가치에 대한 공통의 신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Amdam 2000). 이경진(2011)도 순창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오랜기간 지역에 배태된 지역자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순창군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외부 지식의 투입을 통한 지역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점을 지역발전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발전에는 지역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내 또는 지역 외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의 무형자원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례를 연구한 이병민(2016)과 이진경 외(2022)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을 강조한다. 해당 연구에서 지역정체성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자원을 접하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문화자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자연스런 참여가 이루어지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지속가능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장소와 장소성 개념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체성(identity)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박동성(2013)은 장소성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된 장소가 지속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람들로 부터 인정되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병민(2016)과 이진경 외(2022)가 분석한 사례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장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외부인(소비자·관광객)과 소통하며 이것이 지역정체성으로 확립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자원이 가지는 역사·문화 등 인문학적 가치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외부인과의 접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에는 유무형의 지역자원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할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 지역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4) 장소(場所, place)는 공간(空間, space)과 구분되며 장소성(場所性, placeness)을 지닌다. 장소란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 감정, 기억이 투영되어 의미를 지닌 공간을 의미하며, 장소성은 장소의 의미가 구현된 장소의 특성을 말한다.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감정, 정체성, 역사성, 기억 등 반응을 이끌어낸다. 장소성은 특정 장소를 대상화하는 인간에게 해당 장소가 공간이 아닌 장소로 여겨지도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김민주, 2022). 예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기억을 특정 공간에 투영시킨다면 그 공간은 장소성을 지닌 장소가 된다. 공간이 장소가 될 때 장소성이 발현된다. Relph(1976)는 장소감(sense of place)의 인식 범위 내에 장소 정체성(identity of place)이 있고 이 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장소 정체성이 전제되어 형성되는 인식이 장소감이라 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자원을 토대로 지역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자발적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2 전통주에 관한 논의

일반적으로 전통주는 한 민족의 식생활 풍속이 담겨져 있는 술로서, 예부터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방법으로 빚은 술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화, 2022: 3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주는 현재 2가지를 모두 일컫는 술이다. 첫째, 흔히 ‘우리술’이라 불리는 주류로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든 술(전통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이다. 둘째, 「주세법」상 전통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를 말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세법」상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주 등’에 해당하는 술을 전통주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주는 시·도지사(문화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지정)을 국세청에서 전통주 면허를 지급한다. 즉 ‘우리술’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와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드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기존 연구들과의 연계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주세법」상 전통주인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전통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주류를 중심으로 전통주를 논의한다.

〈표 3〉 우리술과 전통주의 의미

구분	내용
우리술	-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든 술(전통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을 통칭하는 말
전통주	- 한 나라나 지역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 - 「주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민속주	- 주류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 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주류

최근 국내 주류시장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통주류는 매년 시장규모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전통주류의 시장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1.6조원을 기록하였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23),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 출고액은 2017년 400억원에서 2022년 1,629억원으로 4배가 넘게 증가하였다(국세통계연보, 2022). 전통주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작년 ‘원소주’ 품귀 사태에서 잘 나타났다. ‘원소주’는 출시 반년만에 100만병 이상 판매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품귀현상을 빚어낸 바 있다(머니투데이, 2022.08.25.). 전통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혼술’, ‘홈(home)술’ 등으로 주류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러한 관심이 2030세대에서 크게 관찰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김용렬 외, 2022).

〈표 4〉 2022년 지역별 전통주 출고량 및 출고금액 (단위: 킬로, 백만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출고량	326	46	3,579	1,700	19	3,007	2,520	11	11
출고금액	2,221	465	13,699	34,595	156	11,830	13,868	138	31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계
출고량	3,130	4,317	2	1,975	802	951	1,198	378	23,972
출고금액	25,734	19,896	29	19,382	2,034	10,443	5,612	2,779	162,912

자료: 국세통계연보(2022).

전통주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전통주라는 식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통주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통주 소비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통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식품(주류)로서의 전통주 역시 전통주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나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크게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통주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일부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한 지역의 전통주 제조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전통주 제조업체가 놓인 상황을 파악하여, 당면한 산업과제와 필요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화(2020)는 충남지역의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입지만족도와 투자의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는 원물 확보가 용이할수록 투자의향과 지역농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최종우 외(2016)은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조사하여 정책과제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역특산주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규모가 작아 영세성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특산주 업체를 위한 홍보 및 판매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특산주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기본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기업임을 진단하고 있으며, 전통주 홍보 및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통주 소비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전통주 소비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닌 개인들인지, 이들이 전통주를 선택하는 요인(선택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김종화(2022)의 연구는 전통주 소비자들의 선택속성을 분석하였다. 전통주의 소비 선택속성으로 주종, 도수, 용량, 가격을 선정하였고, 전통주 소비자를 대상을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약주를 가장 선호하고 선택속성으로는 높지 않은 도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전통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도 제시된다. 이재훈 외(2012)는 전통주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들의 전통주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전통주 구매에 비교적 많은 지출을 하는 고객은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주 구매액은 평균 남성 3~4만원, 여성 1~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주 소비자는 연령층과 음용행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재은·최종우(2019)는 지역특산주류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특산주에 대한 음용경험, 음용장소, 음용이유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한 결과, 연령, 소득,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특산주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역특산주 구입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조장 체험경험도 지역특산주 구입빈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들도 제시된다. 신동호·한기문(2020)은 제도주의 관점에서 전통주 수출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전통주산업의 문제점으로 저품질, 좋지 않은 위생시설, 고물류비용, 낮은 인지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사케, 프랑스의 와인 등 선진국의 주류산업과 주류정책추진체계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통주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양조장실정에 맞는 정책지원, 지역 전통주의 지리적 표시, 규제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동필 외(2009)는 국내외 전통주 산업현황을 개괄하고 국내의 전통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국내 전통주업체들의 생산, 유통, 판매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포도주산업, 독일의 맥주, 일본의 청주산업은 술의 재료인 포도, 보리, 쌀 등 전통농업을 가공 및 유통과 외식산업, 관광, 축제 등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주산업도 주변 상품·산업과 연계한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표 5〉 전통주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 대상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제조 업체	김종화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 전통주 제조업 육성방안 연구 - 충남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전수 조사(설문조사) -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입지만족도와 투자의향 간의 관계 분석 - 전통주 제조업체는 원물 확보가 용이할수록 투자의향과 지역농업에 기여하며,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최종우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실태조사 하여 정책과제 파악 - 지역특산주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기본방향을 재설정해야 함 - 영세한 지역특산주 업체를 위한 홍보 및 판매 지원 필요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요구
소비자	김종화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소비자의 선택속성 분석 - 주종, 도수, 용량, 가격을 전통주 소비의 선택속성으로 선정하여 전통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 -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통주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추정 -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약주를 가장 선호하고 높지 않은 도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전통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훈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전통주 소비행태 연구 - 전통주 구매에 비교적 많은 지출을 하는 고객은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주 구매액은 남성 3~4만원, 여성 1~2만원으로 분석됨 - 전통주 소비자는 연령층과 음용행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유재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주류 소비자 구매결정요인 분석 연구 - 지역특산주에 대한 음용경험, 음용장소, 음용이유 등을 분석
	최종우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소득, 건강에 대한 관심도, 양조장 체험 경험, 지역특산주 인지도 등이 높을수록 지역특산주 구입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정책	신동호 · 한기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주의 관점에서 전통주 수출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 프랑스의 주류산업 추진 전략 검토 - 국내 전통주산업의 문제점으로 저품질·낮은 위생시설, 고물류비용, 낮은 인지도 등을 제시 - 전통주 육성방안으로 양조장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 지역 전통주의 지리적 표시, 규제개선 등을 제안
	이동필 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 전통주 생산 및 유통 실태 파악 -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사례 조사 - 전통주산업 활성화 방안제시

전통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통주 제조업체, 소비자, 정책 등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지역자원으로서 전통주가 가지는 위상에 주목하여 지역발전사례를 분석하거나 전통주와 지역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역에서 전통주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한 민족의 식생활 풍속이 담겨져 있는 술로서, 예부터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방법으로 빚은 술(김종화, 2022: 3 재인용)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주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전통주는 ‘전통’이라는 무형의 자원과 ‘술’이라는 유형의 자원이 결합된 유무형 속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적 방식으로 술을 빚으며, 세월이 지나며 축적된 지역의 이야기(story)가 전통주에 녹아들어 있다. 예컨대, 한산소곡주로 유명한 충남 서천군에 시인 박목월이 노래한 술 익는 마을이 있다. 시인 조지훈은 ‘완화삼’이라는 시에서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라는 구절을 넣어 박목월에게 보내고, 박목월은 “술 익는 마을에/타는 저녁놀”이라는 답사를 담은 시 ‘나그네’를 쓰게 된다. 이 시 구절처럼 서천군 한산면은 술 익는 마을로 묘사되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를 생산하는 지역이다.⁵⁾ 또한 전통주는 기본적으로 농·식품, 설비·제조, 외식 및 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통주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과 정책(찾아가는 양조장 등)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도 전통주가 가지는 지역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발전과정을 추적해본다. 대상지역은 한산소곡주로 유명한 충남 서천군으로 선정하였다. 한산소곡주를 중심으로 서천면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발전(도시재생)사례 연구들에서 도출한 주요 특성인 유무형 지역자원 발굴, 서천군의 정책지원,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 외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5) 대한금융신문 뉴스기사 (2016.11.06.)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56>

1

한산소곡주 개요

한산소곡주의 기원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⁶⁾ 한산소곡주는 ‘소곡주(小麴酒)’란 표기에서 나타나 듯 ‘누룩을 적게 사용하여 빚은 술’이라는 뜻이며, 누룩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한산소곡주의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흰 소(素)’를 사용하여 ‘素麴酒’ 쓰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이후에도 일본에서 돌아온 왕자 풍을 중심으로 백제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터를 잡았던 곳이 주류성,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인근이다. 이곳에서 여인들이 땅국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흰 소복을 입고 술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때의 모습이 술 이름으로 남아 ‘소곡주(素麴酒)’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탁재형, 2022: 240).

소곡주는 조선시대 일반적 탁주를 제외하고는 삼해주, 과하주와 더불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술로 여겨진다(서천문화원, 2006). 1500년대 말부터 1800년대까지 38개 고문헌에서 소곡주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가히 소곡주는 옛 조상들의 사랑을 받았던 술이라 할 수 있다(여타 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함).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십 년동안 밀주(密酒)로 전락하였고,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쌀로 술을 빚을 수 없게 되자 소곡주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전통주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1979년 충남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의 김영신 씨의 가양(家釀) 소곡주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받았다(서천문화원, 2006).

한산지역에 가양 소곡주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던 서천문화원(2006)의 연구는 지역 내 많은 가구들이 판매 목적으로 소곡주를 빚고 있고, 이러한 가양 행태가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이루어지며 실제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낸 사람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⁷⁾ 이로 인해 지역사람들이 소곡주에 묻는 낯선 외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 조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서천군 한산중학교 1학년 ~ 3학년 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소곡주를 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36명)이었으며(서천문화원, 2006), 서천군 한산면 1,483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술을 빚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3.1%(343가구)로 조사되었다(문화관광부, 2006). 이 결과만 보면 술을 빚는 가구가 1/4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조사팀이 만난 민가들은 대부분 가양주를 제조하고 있었고, 제조 목적으로는 대부분 ‘명절에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구매의사를 비치자 대부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당시 서천군 한산면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곡주를 빚고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⁸⁾

실제로 조사팀이 한산면 29개 중 24개 부락에서 소곡주를 빚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5곳 역시 매우 높은 확률로 소곡주를 빚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중 한산면 단상리의 경우 60여 가구

6) 서천문화원(2006) 자료에 따르면 한산 지역 소곡주가 백제 때부터 유래 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나 문헌은 찾지 못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백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 싶다.

7) 주세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법 위반이 된다.

8) 흥미로운 점은 한산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 가양 소곡주는 1.8L 용량, 1만 5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일정부분 가격과 용량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서천문화원, 2006: 110).

중 30여 가구에서 소곡주를 빚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산면 1500여 가구 중 대다수가 자신이 빚은 술이나 이웃에서 빚은 술을 제사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오는 전통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한산면 지역에서 소곡주라는 전통주문화가 지역 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안동의 안동소주, 경북 경주의 교동법주처럼 특정 소수에게 전해져 오는 전통주 제조 및 판매와는 달리 한산면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가양주 문화가 널리 퍼져 있어 소곡주를 필두로 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산면의 발전특징

한산소곡주의 가장 큰 특징은 한산 소곡주라는 명칭을 특정 소수(명인, 업체 등)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양조장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 다른 한산소곡주의 맛과 양조장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관광객·구매자들에게 한산소곡주를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서천군 한산면 지역에서 소곡주 가양문화가 뿌리깊게 널리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2011년 설립된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서천군은 2011년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을 통해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지원하여 주류면허를 획득한 20개 양조장이 조합을 구성하였다(고병진, 2022). 그해 조합은 소곡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하였고, 2013년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소곡주에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소곡주에 ‘한산’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3.06.06.)⁹⁾. 조합의 운영을 통해 양조장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합에 속한 소곡주 양조장들은 유·무형의 여러 이점들을 누리고 있다. 예컨대, 조합은 주류 브랜드를 일원화하여 ‘한산소곡주’라는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켰고, 조합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위한 병 디자인과 글씨체를 개발하였다. 조합으로 운영되기에 주류의 품질·생산·유통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제품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포장재의 경우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대량구매하여 비용을 낮추고 조합원이 필요한 수량을 따로 조합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비용 절감의 이점도 있다. 서천군에서 ‘한산소곡주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한 한산소곡주갤러리를 한산소곡주영농조합이 맡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산소곡주갤러리는 관광객들이 한산면에 방문하면 꼭 들르는 곳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산면에서 생산하는 소곡주들의 대부분을 시음하고 소곡주 빚기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한산소곡주 병 디자인 및 한산소곡주갤러리

9) 아시아투데이 뉴스기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821514>)



한산소곡주가 융성하게 된 과정에서 서천군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했다. 서천군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산면 일대를 소곡주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시켰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2003년에 ‘한산소곡주’로 지역특구를 신청한 기록이 남아있으며(한국경제, 2003.09.08.)¹⁰⁾, 2005년에는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사업으로 ‘(주)한산소곡주(대표 나장연)’을 추천하여 전통 소곡주 개발을 지원하였다(국정브리핑, 2005.7.28.)¹¹⁾. 서천문화원(2006) 연구에서도 한산면의 가양주 문화의 우수성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특구화를 제언한 바 있는데, 서천군에서도 음지의 소곡주 마을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특구화 지정을 노력하였고, 2009년에는 국내 전통주 생산지로서 처음으로 특구가 지정되었다(서천타임뉴스, 2009.10.29.)¹²⁾. 이에 서천군 한산면은 지현리의 1개면 16개리 일원이 5개년 간 국비 48억원, 지방비 85억원, 민간자본 22억원 등 총 157억원이 투입되어 산업기반 구축, 홍보 마케팅, 한산소곡주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 6>에 한산소곡주특구의 세부 사업이 제시되어있다.

10) 한국경제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644311?sid=101>)

11) 국정브리핑 인터넷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8/0000016816>)

12) 서천타임뉴스 뉴스기사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242718/>)

〈표 6〉 한산소곡주특구 특화사업

사업명	단위사업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업기반구축사업	한산소곡주 제조시설 현대화	한산소곡주 대량생산체계 구축	1,200
	한산소곡주 누룩생산 시설 현대화	품질좋은 균일한 누룩공급 구축	1,300
	한산소곡주 제조 공동시설 구축사업	한산소곡주조합 운영	5,700
	고품질 원료곡 생산 및 관리사업	한산소곡주 생산 이력시스템 구축	1,637
홍보 마케팅사업	한산소곡주 전문 판매점 운영	한산소곡주전문판매점 개설	400
	한산소곡주 홍보 이벤트개최	한산소곡주 제조체험 등(한산소곡주테마거리)	224
한산소곡주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한산소곡주 테마거리조성사업	한산면 거점마을 리모델링 사업	864
	한산소곡주 문화역사 계승시설 건립사업	체험형 한산소곡주 문화역사 마을 조성	3,000
	한산소곡주 역사 홍보관 건립사업	한산소곡주 역사 홍보관 운영	1,000
	한산소곡주 테마민박 선정 및 운영	한산소곡주 테마민박 운영	15
	한산소곡주 축제 개최	한산소곡주축제개최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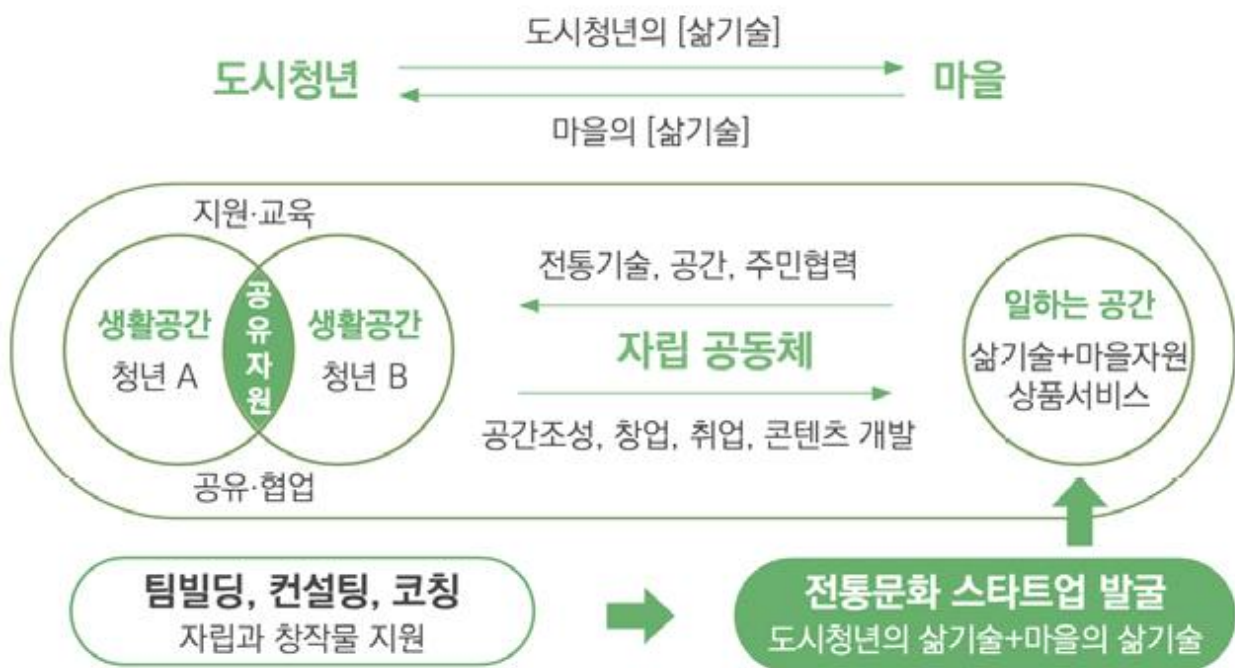
자료: 한산모시관 홈페이지(https://www.seocheon.go.kr/mosi/sub06_05_02_02.do)

2023년 현재 서천군에는 경제진흥과 모시소곡주팀(6명)이 한산소곡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모시소곡주팀이 정확히 언제 신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¹³⁾ 2015년 1월 29일자 서천군 군정소식에 문화관광과 한산모시소곡주팀 팀장 전보소식이 기록되어 있어 2015년부터는 모시소곡주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모시소곡주팀이 신설된 것으로 본다면 소곡주 전담부서가 생겨나면서 소곡주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추진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해 6월 11일에는 「서천군 지역 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통주육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0월엔 첫 한산소곡주축제가 개최되었다. 한산소곡주축제에는 소곡주를 생산하는 여러 양조장들이 참여하여 한산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한산소곡주를 시음할 수 있다. 더욱이 한산소곡주라는 약주를 여러 양조장에서 생산하므로, 축제기간에 한산소곡주 품평회가 진행되어 한산소곡주의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 주류의 품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24개 양조장에서 생산한 소곡주가 축제에 시음주로 제공된 바 있다. 2016년에 서천군 한산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한산 소곡주 6차산업화지구’로 선정되었다. 소곡주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관광을 집적화된 산업지구를 조성하여 서천군 한산면 일대를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사업화과정에서 소곡주의 전시, 체험, 판매가 가능한 소곡주갤러리와 카페, 테마광장이 조성되었다. 2021년에는 한산소곡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되어 한산 소곡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양조장은 서천군 한산면과 인접 지역인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에 위치한 양조장까지 포함되었다(고병진, 2022).

13) 모시소곡주팀 주무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기존에 있던 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이 모시소곡주팀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2013년 8월 19일자 뉴스서천의 한산소곡주 기획취재 기사에 따르면 한산소곡주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산소곡주는 모시산업담당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고 2015년에 신설된 것으로 추측된다(뉴스서천, <https://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9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서천군의 강한 정책적 지원과 한산면 지역주민과 소곡주양조업체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한산면의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기존 서천군 한산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과 서천군 공무원, 소곡주를 빚는 양조장 등 지역 내부구성원들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에 접어들며 한산면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2017년 ‘㈜자이언트¹⁵⁾’가 ‘한산모시문화제’ 축제 기획을 맡게 되는데, 그해 김정혁 대표가 한산면의 빈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정착하였다. 2019년에 김 대표가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모여 다안적 삶을 추구하며 나만의 삶기술로 함께 더불어 사는 자립공동체인 ‘삶기술학교’를 만든 것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는 ‘삶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돕고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 삶기술학교 개요



삶기술학교의 개설로 인해 한산면에 청년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한산소곡주산업도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위주의 한산소곡주 양조장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삶기술학교에서 한 달살기를 하던 청년들이 양조장과 손잡고 한산소곡주 온라인 판매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에 700명이 팔렸으며, 2021년 진행한 온라인 펀딩에서도 목표금액의 869%를 달성하였다. 한산소곡주의 온라인 판로를 연 것으로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4) 삶기술학교에 대한 소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5) ㈜자이언트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기업으로 2012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창립하여 충청남도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나 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마케팅·개발 투자·IT 관련 사업을 한다.

〈그림 3〉 한산 일오백 프로젝트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전하였다. 지역에 오랜기간 비어있던 빈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어 마을 주민들, 정착 청년, 전문가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커뮤니티호텔H’를 조성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호텔H는 마을 전체가 호텔서비스 방식을 제공하 ‘마을호텔’로 마을에 있는 숙소, 카페, 식당, 사진관, 갤러리, 전통기술 체험 등 방문객이 마을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0월에는 한산면에 디지털노마드센터를 완공하여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7월에는 서천군에서 이곳에서 일과 휴식을 결합한 위케이션을 기반으로 한산소곡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술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연합뉴스, 2023.07.26.)¹⁶⁾.

16) 연합뉴스 뉴스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30726157400063>)

한산소곡주를 중심으로 한 서천군 한산면의 발전에는 서천군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자 한 노력(한산소곡주 특구지정),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확립, 서천군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 지역 외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면면들이 보인다. 먼저 서천군은 한산면 지역에 밀주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가양주 문화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3년 ‘한산소곡주’로 지역특구를 신청하였으며, 2005년에는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으로 전통주 소곡주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을 거듭한바 2009년에 국내에서 첫 전통주특구가 조성되었다.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으로 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양조장들의 주류문화 취득을 도왔으며 양조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서천군의 지역자원발굴 노력은 한산소곡주가 지역자원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일찍이 한산면 일대에 가양주문화가 널리 그리고 뿌리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한산소곡주’라는 지역자원을 토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¹⁷⁾ 서천군은 ‘한산소곡주’를 양성화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산소곡주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으로 한산소곡주갤러리를 완공하여 한산면 방문객들이 다양한 한산소곡주를 한 곳에서 시음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산소곡주 주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였다는 점도 한산소곡주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양조장이 공동의 인식을 갖게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천면의 발전과정에서 서천소곡주영농조합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과정에서 영농조합이 발족하여(서천군 지원으로 설립되었지만) 한산면·한산소곡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서천군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한산소곡주축제에도 소곡주영농조합이 주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산소곡주갤러리를 맡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로 거버넌스에 참여할뿐만 아니라 한산면 일대에 집적인 소곡주양조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수요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더욱이 조합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공동구매 등)을 제공하여 양조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서천군과 한산면 일대의 지역주민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삶기술학교’의 개설로 인하여 지역에 새로운 청년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산면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예컨대, 마을주민의 인식, 원주민청년의 상대적 박탈감 등은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융화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삶기술학교’ 김 대표는 청년공동체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발전위원회라는 민·관·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원주민뿐만 아니라 서천군청, 충남도, 행정안전부와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¹⁸⁾

청년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한산면 발전에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이진경 외(2022)는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자원이 가지는 옛것과 새 것의 콘텐츠를 조화롭게 융합해야함을 제언한 바 있는데, 한산면에 정착한 청년공동체 ‘삶기술학교’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삶기

17) 한산면 일대에 지역주민들이 한산면에 대한 장소성을 갖고 있는지 이를 토대로 한 지역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18) 농축유통신문 뉴스기사(<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41>)

술학교'의 사례가 특별한 것은 주역주민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외부인(소비자·관광객) 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지역의 자원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역 외부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기존에 있던 지역자원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들이 다시 지역자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

일찍이 Hudge(1991)은 자신의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전 세계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와 소비문화는 빈곤을 창출합니다. 이 행복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화, 지역문화를 살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라며 지역화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지역발전에 관한 논의들이 지역을 강조하고 지역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과 그 지역구성원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주는 귀중한 지역자원이 된다. 전통주는 ‘전통’이라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의 이야기가 깃든 무형자원과 ‘술’이라는 유형자원이 결합된 형태다. 선행연구들은 보령시의 화장품산업, 순창군의 장류산업 등 유형자원인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서울 광진구의 서울동화축제, 서울 종로구의 인쇄골목투어 등 무형자원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잘 보여주었다(변필성, 2006; 이경진, 2011; 이병민, 2016; 이진경 외, 2022). 문화자산과 지역특산품이 결합된 전통주는 지역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자원으로서 전통주가 가지는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충남 서천군 한산면을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도시재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자원의 발굴, 시의적절한 정책적 지원,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확립, 외부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한다. 서천군 한산면 일대는 예로부터 소곡주를 빚는 가양주 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해 있었고, 서천군의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으로 밀주형태로 생산되고 판매되던 소곡주를 양성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소곡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소곡주양조장의 술 품질제고와 공동체형성을 지원하였으며 한산소곡주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여 한산소곡주에 대한 서천군의 독점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한산소곡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끝으로 서천군에 ‘삶기술학교’가 설립되어 외부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천군 한산면의 일련의 발전과정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성공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전통주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통주는 ‘전통’의 문화자산과 ‘술’이라는 지역특산품이 결합된 지역자원이다. 전통주 육성정책도 문화자산과 지역특산품을 모두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천군은 서천군문화원을 통해 한산면 일대와 소곡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자원 발굴에 노력하였다. 한산소곡주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산면 일대에 소곡주를 빚는 방식, 빚는 방법을 계승한 가족구성원, 전통적인 요소 등의 자료를 모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전통이라는 문화자산의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서천군의 전통주 육성정책에서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소곡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한산소곡주의 가장 큰 특징은 소곡주라는 전통주를 특정 소수(명인, 업체 등)가 점유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여러 양조장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곡주를 중심으로 양조장

들이 결속하기 용이하였으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충북 영동군의 영동와인이 다. 충북 영동군은 소백산맥 추풍령 자락에 위치하여 지대가 높아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와 향이 높아 우리나라 과일의 성지(聖地)라고 불린다. 그중에 포도는 미국에도 수출될만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년 약 2,750여 농가가 1,050ha 면적에서 포도를 재배 중(우리나라 전체 포도 생산량의 10.4% 정도가 영동군에서 생산된다)이며(경남매일, 2022.07.26.)¹⁹⁾, 영동포도로 빚은 영동와인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영동와인이 유명할 수 있었던 점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와인연구회라는 영동와인공동체를 형성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와인연구회를 통해 구성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전파를 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서천군과 달리 지역에 존재하던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자원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포도)을 활용하여 와인이라는 지역특산주를 창출해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도 안동소주 발전을 위해 ‘안동소주협회’를 발족시킨 것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²⁰⁾

〈그림 4〉 영동와인연구회 BAND 홈페이지



(2) 청년공동체 마을사업 시사점

전통주와 관련된 마을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울산의 ‘복순도가365 발효마을’이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군산의 ‘술익는마을’이 청년마을로 선정되었다. 서천군의 ‘삶기술학교’가 독특한 것은 농촌에 지역자원을 매개로 지역 원주민들과의 접점을 마련하여 소통을 지속하였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자원이 가지는 옛것과 새 것의 콘텐츠를 조화롭게 융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년공동체 마을사업에서도 기존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이를 가지고 지역원주민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19) 경남매일 뉴스 기사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98>)

20) ECONOMYChosun 뉴스기사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21/2023082100021.html)



참고문헌

- 고병진. (2022).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관한 연구 -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 김민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소 기반 지역축제에 나타난 장소성 분석 - 연천전곡리구석기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1): 397-434.
- 김용렬·김참호·최재현. (2022).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화. (2020). 충남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방안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7(3): 420-447.
- 김종화. (2022). 충남 전통주의 선택속성 및 제품차별화 전략. 「마케팅논집」, 30(1): 1-17.
- 김현호·박승규·김상민·김도형. (20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걸리 산업의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혜민. (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정책연구, 1(2): 25-54.
- 남동현·이현호·안성식. (2016). IPA를 이용한 전통주전문점 고객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고객만족경영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0(11): 235-252.
- 농림축산식품부. (2023). 「제3차(2023~2027)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 문화관광부. (2006). 전통가양주 실태조사 사업 보고서.
- 박동성. (2013). 도시축제 연구를 통한 지역표상과 장소성에 대한 고찰 -일본 시모다시 구로후네사이(黒船祭)를 사례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4: 373-404.
- 박미성·김용렬·김유나. (2020).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필성. (2006).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상품화의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7-22.
- 서천문화원. (2006). 한산지역 가양 소곡주 전통 발굴.
- 성주군(2022). 성주愛청년창업가 정착 지원사업.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 신동호·한기문. (2020).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전통주 수출방안. 「관광레저연구」, 32(2): 253-265.
- 유재은·최종우. (2019). 지역특산주류 소비자 구매 결정 요인분석, 「산경연구논집」, 10(6): 39-50.
- 이재훈·최성수·권영주. (2012). 전통주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통주 소비행태 연구, 「호텔관광연구」, 14(3): 213-225.
- 탁재형. (2022). 우리술 익스프레스. EBS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2021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촌, 희망의 길을 걸어가다: 202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Amdam, J. (2000). Confidence building in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Some experience from Norway. *European Planning Studies*, 8(5), 581-600.
- Friedmann, J., & Douglass, M. (1978).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In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p. 163-192). Pergamon.
- Hudge (1991). *Ancient future: learning from Ladakh*. Sierra Club Books.